Exploring the Link between Peripheral Area and Provincial New Town in Chungcheongnam-do: The Case of Boryeong City

Yang Kwang-Sik

= Abstract =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s for regional development how the linkage would be structuralized between peripheral area and provincial new town in Chungcheongnam-do. By developing the provincial new town into a complex type self sufficient city where provincial administrative functions will be moved into and accommodated. Pivotal provincial administrative functions will be the major functions of the town, and diverse town function, such as culture exchange, research and development-education, hitech-industries and medical service-welfare will be enticed. Through fostering links between peripheral area and provincial new town, the regions will find strategic ways, further facilitating balanced development in Chungcheongnam-do.
1. 서 론

충남 서북부지역으로 일컬어 ‘내포문화권’에 도청 이전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환경문화권과 인접한 서해안 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이전은 도행정 관련 유관기관의 동반이전을 유도함에 따라 충남의 각 시·군에서는 도시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방안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고 도청 이전을 주변지역의 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발전구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청 이전 신도시와 인접한 시·군에서는 충남 서남부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근접성, 지역 양호한 도시환경 및 자연환경을 도청 이전 신도시의 정주인구를 포함하여 도행정 업무와 관련한 유동인구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청 이전 신도시가 건설되는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하여 인접 시·군에서 도청 이전과 연계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지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령시와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시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올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광활동 위주의 지역발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보령시를 사례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보령시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의 기능과 보령시의 도시환경에 기반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계 방안을 총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2. 개발현황 및 여건변화

1. 백제문화권 중심의 개발추세 형성

충남권은 3개의 중심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도청 이전신 도시)와 주변권역(금강권, 북부권, 서해안권)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충남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에 따라 충청남도는 서해안권의 중심도시에서 충남권의 3개도시의 수용기능과 균형을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

[그림 1] 충청남도의 개발사업과 공간구조 변화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산신도시는 행정업무이외에 교육연구, 산업, 문화관광, 복지의료, 주거 등 수준 높은 도시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 생활환경의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행복도시와 아산신도시 수용기능 비교

<table>
<thead>
<tr>
<th>기능구분</th>
<th>행복도시</th>
<th>아산신도시</th>
</tr>
</thead>
<tbody>
<tr>
<td>행정업무기능</td>
<td>국가행정</td>
<td>지방행정</td>
</tr>
<tr>
<td>교육연구기능</td>
<td>종합대학,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td>
<td>종합대학/대학원, 연구시설</td>
</tr>
<tr>
<td>산업기능</td>
<td>첨단지식기반제조업, 도시형 산업</td>
<td>첨단산업, 벤처비지니스 Park</td>
</tr>
<tr>
<td>문화관광기능</td>
<td>박물관, 기술관, 공연장, 도서관</td>
<td>지역문화시설</td>
</tr>
<tr>
<td>복지의료기능</td>
<td>종합병원</td>
<td>종합병원</td>
</tr>
<tr>
<td>주거기능</td>
<td>일반주거</td>
<td>일반주거</td>
</tr>
<tr>
<td>기타</td>
<td>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콘퍼런스미널</td>
<td>컨벤션센터, 호텔</td>
</tr>
</tbody>
</table>

2. 도시간 경쟁과 협력 심화

도청 이전 신도시는 아산신도시에서 40km, 행복도시에서 60km 떨게 위치하여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변 도시 간 30~60분 이내로 출퇴근 가능거리 및 시장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천안, 논산, 대전 등 고속도로, 국도 21호선 연계도로, 장항선 개량화 및 첨단화 등 철도망이 비교적 잘 연계되어 도시간 협력의 기반이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하여 당진, 서산, 청양 등 도청 이전 신도시의 주변 시·군은 물론 아산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공주·연기지역의 경쟁과 협력관계 형성이 향후 보령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할 것이다.

[그림 2] 도청 이전 신도시와 보령시 지정학적 위치
3.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

도청 이전 신도시는 보령시로부터 접근거리가 가깝고 국도 21호선 등 직접적인 교통연계망이 형성되어 기존 행정과 민원, 사업체 관련 업무처리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차원에서 도와 관련된 업무처리와 사업체가 직접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도청 이전 신도시의 개발의 적격적인 파급효과로 도시개발의 극화 또는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도시기능이 종속화되어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의 폐쇄형 주거환경, 수준 높은 공공관리시설, 철단 정보통신 체계 등으로 보령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3.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1. 개발개요

도청 이전 신도시는 2006년 2월 도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 이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삼교읍 일대에 약 299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며, 신도시내 거주인구를 약 12만 명으로 계획하였
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2012년부터 도청 및 유관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도청 이전 신도시는 단계별로 개발되며 1단계는 도청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업무기능, 대학 및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기능, 관광문화시설과 공원녹지, 주거단지 등 자족적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만평이 개발된다. 2단계는 항후 개발여건의 변화와 도시성장여건에 따라 첨단산업기능을 중심으로 100만평 규모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표 2 도청 이전 건설 추진일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준비단계 (2006년 상반기)</td>
<td>- 도청 이전 예정지역 선정</td>
</tr>
<tr>
<td>건설단계 (2009년 하반기 - 2011년 하반기)</td>
<td>-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td>
</tr>
<tr>
<td>이전단계 (2012년 하반기)</td>
<td>- 도청 이전 청사건립</td>
</tr>
</tbody>
</table>
2. 개발목표와 전략

1) 개발목표

도청 이전 신도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된다. 특히, 도청 이전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친환경적 생태도시와 첨단 정보화 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를 설비하고 통합형 행정 도시, 첨단과학도시, 고품격의 웰빙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2) 개발전략

도청 이전 신도시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연구도시를 지향하는 "첨단과학도시"와 복지의료기능을 강조하는 "건강복지도시"를 특성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청이 담당하던 행정업무기능을 비롯하여 지식산업, 역사, 문화, 권장,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유치할 계획이다.

(1) 통합행정기능

통합행정기능에는 행정 및 관련 서비스 기능을 위해 도청을 포함하여 유관기관과 지원서비스기관이 포함된다.

(2) 첨단과학기능

첨단과학기능에는 IT, BT 관련 첨단지식산업, 대학 Campus (지역대학, 수도권 대학), 해외대학 (Branch Campus), 산학협동회 단지(Techno Park / Science Park)산업단지 등 교육기능과 연구·개발기능 유치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기관이 포함된다.
(3) 건강복지기능

건강복지기능에는 종합병원과 미래사회에 대응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Golf, 승마 등과 연계한 주거단지와 온천·역사문화를 연계한 실버타운(의료복지지역) 등 복지의료, 주거, 지역특화기능이 포함된다.

[표 3] 도청 이전 신도시의 주요 도입기능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도입기능</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통합 행정도시</td>
<td>도행정기능</td>
<td>- 도청, 도의회 및 유관기관</td>
</tr>
<tr>
<td></td>
<td>산업기능</td>
<td>- IT, BT 관련 첨단지식산업</td>
</tr>
<tr>
<td>첨단 과학도시</td>
<td>교육연구기능</td>
<td>- 대학 Campus (지역대학, 수도권 대학)</td>
</tr>
<tr>
<td></td>
<td></td>
<td>- 해외대학 (Branch Campus)</td>
</tr>
<tr>
<td></td>
<td></td>
<td>- 산학협동화 단지(Techno Park / Science Park)</td>
</tr>
<tr>
<td>건강 복지도시</td>
<td>복지의료기능</td>
<td>- 종합병원 (임상병동 등)</td>
</tr>
<tr>
<td></td>
<td>주거기능</td>
<td>- 주거 + 스포츠(Golf, 승마 등) 단지</td>
</tr>
<tr>
<td></td>
<td></td>
<td>- 미래사회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주거</td>
</tr>
<tr>
<td></td>
<td>지역특화기능</td>
<td>- 온천·역사문화, 실버타운(의료복지지역)</td>
</tr>
</tbody>
</table>

3. 개발구상(안)\(^1\)

1) 계획인구

해당 부지의 계획인구는 도청 및 유관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유입인구와 도청 이전 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 등 특화기능 도입에 따른 발생인구 그리고 개발의 파급효과로 유입되기 될 인구를 포함하여 약 120,000명으로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에서 약 30,000명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홍성, 예산의 인구(160,400명)중 감안할 때 최소 16,000여명은 도청신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되고\(^2\) 홍성,

---

1) 도시첨단신도시 개발계획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lh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구상(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2) 홍성과 예산 주변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도청신도시로 적극 이주하였다는 사람은 9%, 궁극적으로 이주를 검토하겠다는 사람은 32%로 나타났고 이주여부에 상관없이 분양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9%, 분양참여를 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은 40%에 달했다. 따라서 적어도 홍성, 예산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최소 10% 정도는 도청신도시로서 제공되는 아파트나 부동산 분양에 참여하여 도청신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예산 외곽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시공간구조

도청 이전 신도시는 중심행정기능과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역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계획하였다.

행정기능과 연계된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자립성적인 완결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업무, 주거, 산업 중심의 총 5개의 소생활권(2개의 중심생활권, 예산생활권, 홍성생활권, 산업생활권)으로 배분하였다. 특히, 관광 및 산업 기능을 유치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화랑역 이전을 통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중심행정기능과 홍북면 생활권의 연계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3) 토지이용계획

전체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33.9%, 대학 및 산업용지 11.8%, 공원녹지 27.6%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24.9%로 계획하였다. 수요 계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과 규모계획을 수립하고 구도형 전원주택지 및 생태생활단지 등 특화된 주택단지를 공급하였으며 다양하고 조화로운 단지조성을 위한 횡단면 간이 규제를 지양하였다. 또한 주거지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해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도청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공공청사와 1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 연계 및 지역특화를 위한 관광관련 시설 등이 설립된다.

4) 교통체계

주변도시 및 광역교통체계와의 긴밀한 연계성과 부지 내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로망을 구상하였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 등을 이용한 수도권 및 주변도시와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형성하였다. 주간선도로는 총 4개 노선으로 주변지역 연결 및 장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상하였으며, 보조간선도로는 총 3개 노선으로 생활권 간 연결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구상하여 기급적 도시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간선도로와의 접속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아산신도시, 태안기 업도시, 행복도시 등과의 국도연결망을 구상하였다. 철도는 장항선을 전철화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남-북 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변 도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생활권 외곽도로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광역버스로 연결되는 BRT시스템과 주 생활권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순환형 경전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4. 도청 이전 신도시의 개발이 보령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1) 시장확대

도청과 유관기관의 종사자와 가족의 이주로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고급적 농수산품 수요증대가 전망된다. 따라서 도청 이전 신도시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시설체소 및 특화작목 생산을 위한 근교시설 및 농업발달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중심의 농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전망된다. 또한,
수산물의 수요증가로 수산물의 유통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보령의 장소마케팅 가능성 증대

보령시는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30분이내 시간거리에 입지하여 숙박 및 음식, 전통 도소매 등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판광산업의 발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판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판광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

도청 이전 신도시는 지역대학, 수도권 대학, 해외대학 (Branch Campus) 유치와 산학협동화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보령시민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주민생활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

도청 이전 신도시에 최첨단 복지 및 휴센시설,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설치되어 보령시와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 지역연대감 강화

도청이 대전에 소재하여 충남지역의 행정 및 사회·경제활동도 대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으나 도청 이전을 통해 충남지역의 독자적인 중추관리 기능과 지역중심성에 근접하게 되어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정심을 고취할 시점은 물론 지역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1) 도시기능의 약화 가능성 내재

도청 이전과 새로운 도시기능이 보령시의 복무지역에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보령시의 개발주축에 설정된 관광지방산업단지(관광지구), 베후주거단지(관산지구) 및 대학, 연구소와 산업·물류기능 등의 약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2) 지역내 노동시장 유출

개별기업의 높은지급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신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킹을 위해 도청 이전 신도시의 산업집적 기반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보령시에 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도 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령시의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및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3) 학생유출가능성 확대

도청 이전으로 보령시의 교육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잠재력 인재들이 도청 이전 신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령소재 고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이 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학할 가능성이 증가되어 학생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지역의 전통문화 파괴가능성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로 도시화가 촉진되어 보령시의 전통문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많다. 즉, 도청 이전 신도시로의 입주주민과 보령시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와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문화공간의 확대와 다양한 주민화합의 대책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8]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 보령시에 미치는 효과
5. 도청 이전 신도시와 보령시의 연계발전 방안

1. 기본방향

도청 이전 신도시와 보령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도청 이전 신도시의 특화기능,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 규모, 보령시의 해양 및 산악환경을 활용한 강소마케팅과 해양관광활용 중심의 소비형 문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9] 도청 이전 신도시와 보령시 연계발전의 기본방향

1) 도청 이전 신도시의 특화기능 연계

도청 이전 신도시는 천천히 생태도시와 첨단 정보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환경에서 통합형 행정, 첨단과학, 고품격 웰빙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과 교육연구도시를 지향하는 "첨단과학도시"와 복지의료기능을 강조하는 "건강복지도시"를 특성화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보령시의 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계 전략이 필수적이다.

2) 도청 이전 신도시 생활권을 활용한 도시근교형 발전전략 추진

도청 이전 신도시가 인접해 있다는 것은 보령시 차원에서 기회요인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청 이전 신도시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근교산업의 발전가능성과 도청 이전 신도시의 해양여가 공간으로 관광데레 산업 기반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의 기능 일부 즉, 교육주거단지, 휴양시설 등 분담과 도청 이전 신도시와 연계된 관광개발을 통해 도청 이전 신도시의 발전력을 보
3) 해양환경 친화형 도시공간 창출

보험시의 해양관광지역은 보험시민은 물론 신도시 거주민, 그리고 수
도권 및 대도시의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보다 페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유입,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적
스마일 위주의 물리적 편의성 추구를 위한 개발보다는 보험시의 교육의
환경과 경관을 유지, 복원, 창조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양활동 친화적인 요소를 도입한 주택, 도로 등의 경비를
장려하기 위한 계획적,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보험
시의 해양비오토퍼티워크조성, 해양 경관형성사업 등 지역에 다양한 형
태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4) 보험시 자원을 활용한 소비형 문화산업 육성

관광부문이 보험시의 중요한 지역 발전 자원인 것을 감안할 때 풍부한
해양 및 산악 등을 활용한 관광활동을 산업화하는 전략을 통해 도청 이
전 신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시는 문화사
업의 기반이 되는 고정재화 즉, 문화중심시설과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지역경쟁력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소비형 문화산업(관광산업)을 특화발
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험
의 관광자원에 기반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제조업형 문화산업으로 발
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계방안

1) 유관기관 및 기업유치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로 도행정과 관련된 공기업, 공공(국가)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이 이전된다. 실제 충청남도가 2006년 3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 유관기관 단계의 50% 정도가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희망기관의 규모와 위치는 도청과 직접적인 업무연계성이 적에도 임무시가, 이전 관련 지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은 이전 지원 내용과 방식에 따라 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주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지역에 입주하여 도청 이전 신도시의 지원서비스 혜택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신도시 조성, 대규모 주거공급,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지원개정 방안 보다 차별적이고 경쟁력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해양관광 활동특화 사업

보령시의 도시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수려한 해양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양관광활동은 어류철 해안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수욕, 머드เดิมพัน
code error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유람형</th>
<th>운동형</th>
<th>휴양형</th>
</tr>
</thead>
<tbody>
<tr>
<td>해양의존행</td>
<td>크루즈관광, 잠수함 관광, 해중천장 등</td>
<td>서핑, 보트, 요트, 계트스키, 세일링, 스키, 스노클링, 스크바디빙</td>
<td>해수욕, 모래점질, 수렵, 바다낚시, 조개잡이, 머드마사지 등</td>
</tr>
<tr>
<td>해양연관행</td>
<td>해양문화관람, 수산물시장 방문, 해양박물관관람</td>
<td>비치놀이, 해변발리기, 해변달리기</td>
<td>해변에서 개임 및 음악감상, 그림그리기, 일광욕, 산책</td>
</tr>
</tbody>
</table>

(1)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도정 이전 신도시의 30km 시간거리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보령신항 주변에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수산물 유통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연계한 수산물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특화사업은 행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훈련시설 건립

도항정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관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할 때 보령시는 반나절 또는 1-2일 이내 단기형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령시의 종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교육 및 훈련과 휴양.숙박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시설을 건립하여 교육연수를 특화한 일중
의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고급주거단지 건설

도청 이전 신도시에는 전환적이고 주거환경과 주거단지의 주택형이 도
입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유형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양환경과 인접한 지역의 고급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청 이전 신도시의 고급 주거주요를 중복시킬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수변신변로, 자전거로 등 주거단지의
주변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시설을 특화하여 설
비할 필요가 있다.

(4) 체류형 휴양단지 건설

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중대되고 있는 웰빙시대에 휴양, 자연적 치료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은 필수적인 시설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주 5일 시내를 맞아 좋은 환경에서 체류하면서 휴양하는 사회
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양과 산악공간
을 연계하고 휴양시설을 희합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6. 정책제언

1. 보령소재 기업 및 인력유출 방지

도청 이전 신도시의 세계감염 등 각종 지원 조치로 보령시 소재 기업
들의 역차별이 발생하여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보령시
소재기업의 경우 도청 이전 신도시의 입주업체와 동일한 세계지원 및 법
률적용을 요구하여 이전기업과 소재기업간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령소재 기업의 인력 유출 문제를 최소화 하
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기업 및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 지원확보 노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실례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도시정비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 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범도시로 지정될 경우 사 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와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제외)의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청 이전 신도시와 연계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앙정부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정부는 지역역량강화 및 특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선 정과정을 통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 교통, 관광,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시행과 외부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